

교단 2019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교단의 2019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11일(월)과 12일(화) 양일간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졌다.

시험 첫날인 11일(월)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예배실에서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예배가 이어졌다.

김인규 목사는 록 1:37-38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름 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

나남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의 종은 담대해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전력을 기울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수험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



김인규 목사
고시위원장



이문근 목사
고시위원



권우석 목사
고시위원



이석호 목사
고시위원 회 서기

독교교육학, 한문이 차례로 치러졌고 둘째 날에는 성경고시, 설교 및 면접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성경대로의 바른복음전파 총력 다짐

제67차 총회 제10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12일(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보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학제기통을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전혀 기도에 힘쓰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안기철 목사의 기도, 정재위 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서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이날 제 22:20, 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 전해 듣는 북한기독교의 실상은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속의 꿈과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들의 희망은 '하나 주 예수여 오소서'인 데다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이 때 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서 북한에 교회들을 세우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고 특히 종교다원주의의 철저한 배격으로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이윽고 추위에도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혼란



한 정국 가운데 나라의 안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다.

의장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신재영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부흥사회 사무예배, 2019년도 목사고시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선교사가입 청원, 교역자은퇴 보고, 네팔신교사 2명에 대한 목사안수, 선교사 임명 건 등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67차 총회 5회 실행위원회 일정과 67차 총회 11회 임원회의 일정이 통과되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조용목 목사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7,18)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자기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으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구원과 죽음 후의 세계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좇아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며,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구세주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방탕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다양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료에 채운다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반제단의 불이나 다른 불이나 불의 성능은 마찬가지로 여겨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제는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궤의 고리에 껴져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고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제를 운반하는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옷사가 법제에 손을 대어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시므로 옷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선한 의도라도 무지한 행실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인간의 종교행위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종교의 역사성과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과 교리의 윤리성과 장엄한 의식 그리고 많은 신도 수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을 역행하여 하나님께서 기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부정(否定)하면 사탄의 사주(使主)를 받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미옵소서..."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면 자칫 사탄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은 가차 없이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교방식이 탁월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생활에 조화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한기총 제30회 총회, 대표회장 선출

전광훈 목사 121표, 김한식 목사 95표로 26표 차이로 당락 결정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 14층 강당에서 열려 대표회장으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를 선출했다.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쏟은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김한식 목사와 전광훈 목사가 후보로 나서 1차 투표에서 전광훈 목사가 당선됐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김한식 목사가 95표, 전광훈 목사가 121표로 불과 26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대표회장에게 당선된 전광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저를 선출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합기관이 빨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표회장으로 또 ‘한기총의 무너진 신뢰 회복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동성애와 이슬람 저지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



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 사회로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직전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생각하는 마음’(대상 11:15-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예배는 미주한기총 대표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김지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는 엄기호 목사 사회로 대표회장 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신 및 전 회의록 채택 후 각 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했으며, 모든 사업계획을 신집행부로 위임하기로 하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영풍회, 제36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정상업 대표회장, “한국교회 부흥위해 앞장설 것 다짐”



한국기독교영풍회는 제36대 대표회장 정상업 목사 취임 및 직전회장 신석 목사의 임 감사예배와 신년하례예배를 지난 1월 22일(화) 오전 11시 CTS기독교TV컨벤션 11층에서 드리고, 한국기독교영풍회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취임 준비위원장 노수우 목사

(상임회장)의 사회로 부흥회장 김남심 목사의 기도과 사무처장 임영선 목사의 구호제창, 서기 김주석 목사의 성경봉독(마태 14장 8절), 피아니스트 이용호 집사, 바이올린리스트 이소리 자매의 연주 등의 순서로 드러졌다.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가 ‘주를 위하여’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먹어야 하는가. 모두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며, “36대 대표회장이 된 정상업 목사는 주를 위해서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상주는 귀한 영풍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회계 이화평 목사의 봉헌기도, 사업본부장 김창호 목사의 봉헌송, 사무총장 권영만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박종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진행위원장 이규봉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상임총무 소대영 목사의 기도와 직전회장 신석 목사의 이임사 후 대표회장 정상업 목사가 직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기총·한교연 ‘한국교회 기관 통합 위한 합의’

“6월 말까지 하나로 통합할 것을 한국교회 선언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회(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1월 3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실에서 만나 한국교회 분열을 극복하고 2월 말까지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합의 서명하고, 각 총총위를 통해 6월 말까지 통합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교회기관 통합을 위한 합의서 발표.

135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항상 그 중심에 있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

지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요 사회의 등불이었던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근래에 와서 몇몇 지도자들의 이기심으로 분열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회는 1.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분열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2. 2월 말까지 두 기관이 통합하기로 합의 서명하고, 3. 각기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하여 6월 말까지 하나로 통합할 것을 한국교회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신임총회장 최애헌 목사 취임식도 함께 가제



(사)전국기도원총연합회(총재 김종환 목사)는 지난 1월 25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19년 신년 감사예배 및 총회장 이·취임식을 전국기도원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하 가운데 가졌다.

취임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손귀영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동만 목사

의 기도, 법인감사 최미라 목사의 성경봉독, 정수로 전도사의 특별찬양, (사)전국기도원총연합회 법률고문 손평업 목사의 왕상 18:30-40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갈릴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부총회장 김태지 목사가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부

속회장 주옥남 목사가 ‘국가 경제부흥을 위하여’, 총년회장 한계숙 목사가 ‘문·경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실무회장 김미경 목사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하여’, 법인이사 송영선 목사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법인이사 신강용 목사가 ‘기도원과 연합회를 위하여’란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글로리아운 목사(복음가수)의 한금송, 법인이사 정현모 목사의 한금기도, 황설주 목사(전국기도원총연합회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신년인사, 계속해 취임식은 사단법인 총무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미가엘찬양단의 찬양출동, 황철주 목사(대표이사)가 직전 총회장 고화순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계속된 취임식은 직전총회장 고화순 목사

“국가인권위 인권정책 편향시각” 우려

길원평 교수, 김지연 대표 등 국가인권정책토론회서 지적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 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지난 2월 11일(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 앞서 조세욱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국가에서 인권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표현과 행동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한다는 건 반인권정책이다. 국가인권위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의회)의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발제, 김영길 대표(비른군인권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김원평 교수(부산대),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인권위법 제2호 제3호는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 문구(성적지향)가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세기총, 한반도평화정착 하와이기도회

750만 재외동포 위해 뜨겁게 기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1월 20일 오후 7시 하와이 크리스찬교회(황성주 목사,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서 제11차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하와이기도회를 세기총 임원진 및 하와이한인기독교총

연합회(이하, 하기총) 회원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하기총 총무 박건일 목사(하와이서부장교회)의 내빈소개, 황성주 목사(준비위원장, 하기총 대표회장)의 환영

사, 최나신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의 대표회사, 황경일 목사(세기총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한나하라구찌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 세기총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가 창 32:6-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김은순 목사(하와이수정교회)의 한금기도에 이어 특별기도회시간을 갖고 김철훈 목사(진리의빛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장세현 목사(하와이좋은교회)가 ‘하와이의 복음화와 영적부흥을 위하여’, 송난숙 목사(임마누엘크리스찬교회)가 ‘별빛과 굽주리는 북한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안정남 목사(하와이한인장로교회)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예장피어선 총회 신년하례예배 드려

합심해 교단발전 위해 헌신할 것 다짐

대한국수교정로회피어선총회(총회장 김원식 목사)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 병화교회(김병선 목사)에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교단발전을 위해 총대원들이 기도도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노회 부도회장 김세철 목사의 사회로 박종만 목사(동산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엄달권 목사(중앙노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엄 목사는 빌 3: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시민권을 얻는 데 있다”고



고 말하고, “우리 모두 이 목적을 위해 한자게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하례예배는 경남노회 증경노회장

조관제 목사의 축사, 은혜교회 고경욱 목사의 권면, 총회장 김원식 목사의 인사말 후 엄달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취임예배

예성 서강석 목사 제36대 회장에 취임

예성 강서지교회 한미음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서강석 목사가 김포시기독교 연합단체인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위한 취임감사예배 및 임시총회가 지난 1월 27일(주일) 오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한미음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취임식은 1부 감사예배와 2부

취임식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이봉조 목사(증경회장, 김포성결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김광철 목사(증경회장, 새벽교회)의 기도와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단장 하창 장로)의 찬양 후 윤기순 목사(예성 총회장)가 민 27:18-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윤성 목사(증경회장, 대명교회)가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김홍식 목사(서기, 사랑의동산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에서는 함동수 목사(부회장, 고촌제일교회)의 기도 후 회장 서강석 목사의 취임사, 임재호 목사(직전회장, 양곡제일교회)의 연합회기 전달, 취임 및 공로패 증정, 축가(나눔인 집사), 축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이사장, 온세계선교회 대표, 자문위원, 세터민나눔센터 대표), 격려사(증경회장 송재원 목사), 권면(임재호 목사)이 있었고, 이광원 목사(증경회장, 마조교회)가 축복기도를 함으로 순서를 마쳤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도하며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연수 목사)는 지난 1월 27일(주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순복음만남의교회(담임 안재홍 목사)에서 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시무식 및 경건예배에서는 지방회 총무 안재홍 목사가 엠 5:15~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 교회별로 교회의 근황과 새 소식을 전하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조만간 제주지방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총회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역을 탐방하기로 결의

하고 인근에 있는 순복음만남의교회 성도들과 연합하는 횡집에서 생전회 코스장으로 애찬을 나누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은혜와사랑교회 창립 및 교역자 취임예배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월 28일(월) 오전 11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31에 위치한 은혜와사랑교회 새성전에서 은혜와사랑교회 창립 및 담임교역자 취임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은혜와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정복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심혜원 목사(임마누엘교회)의 대표기도, 남원 순복음중앙교회 찬양악역자인 김광민 전도사의 특송,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정복순복음중앙교회)의 마 27:27~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



다. 이어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순복음신원교회)의 헌금기도와 에해성전복신학교동문의 헌금송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담임교역자 취임식은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진행으로 취임서약과 공포 및 취임증서 수여

가 있었으며, 증경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주바라기교회)의 권면, 증경지방회장 조종현 목사의 축사, 담임교역자 전숙희 전도사의 인사말과 광고,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님사랑순복음교회 창립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1월 28일(월) 오전 11시 하나님사랑순복음교회(담임 강현 전도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증평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기도,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이연 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담전 3:14: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창립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구제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창립 선포, 지방회 회계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봉헌기도,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권면,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강현 전도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사랑 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언약과 회복의 주님 바라보며 힘내시라”

서울남서지방회

서울남서지방회(회장 이복순 목사)는 지난 1월 24일(목) 대림벤엘교회(담임 조선남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2019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의 한해가 되기를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회장 이복순 목사(진리외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후관 목사(산나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주정민 목사(벤엘교회)의 성경봉독, 회장 이복순 목사(진리외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삼하 9:7-8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사울의 손자이

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 적패하지 아니하고 언약과 회복으로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거처도, 소유권도, 신분도, 일자리도 바뀌었으므로 언약과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시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재무 신은순 목사(반석교회)의 강권함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한 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믿고 있으니 계속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사역과 강권함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이어 이치호 전도사(믿음교회)의 헌금기도, 조선남 목사(대림벤엘교회)의 헌금축복 및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총회보고, 재무 및 회계에 대한 행정보고를 한 후, 대림벤엘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고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입입생 모집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옹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 생명의 말씀 ■



백영자 목사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사랑하는 자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라

아 8:5~7

자리왔는가를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저기 오는 솔로몬의 아내가 우리가 알던 솔람미 여인이냐며 소리치며 부러워하는 장면이다. 아무런 명성도 없던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왕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죽음의 거친 들에서 올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1.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7절)

사랑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표현했다. 1) 인정하는 말, 2) 함께하는 시간, 3) 선물, 4) 봉사, 5) 스킴십이라고 표현했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다. 아가는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한 후 예루살렘 솔로몬의 왕궁을 출발한 행렬이 거친 들을 지나 수백 평인 고향으로 돌아온다. 솔람미 여인이 누구네 딸이고 어떻게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연가라고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하나님은 서둘러 천사들을 보내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죄인의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뱀을 향하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어떤 것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탄, 마귀와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훼방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6절)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의 하나인 서머니의 폴리갑은 주후 155년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다.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때에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기 앞서 그를 존경하던 군대 장군은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록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풀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다. 폴리갑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폴리갑은 불에 타 순교를 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사랑의 힘도 죽음 같이 강하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떨지만 그 죽음을 이길 힘이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겼다.

3.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다.(7절)

샘물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선물은 반드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가져 준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이다. 사람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얼 할 나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 사랑은 선물로 받을 수 있다.(요 1:9)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 15:31)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목회지는 소록도가 건너보이는 녹동 바닷가에 있다. 때로는 조개를 캐기도 하고, 미역을 뜯으면서 목회의 고단함을 위로 받기도 한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산 언덕에서는 새소리가 들린다. 믿음은 파도소리와 같고 숲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에도 같다. 파도 소리가 들리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새소리가 들리면 숲 속에 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롬 10:17)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 죽음의 거친 들과 인생의 거친 들에서 간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법관들에 의하여 판결되는 재판 건수는 “2018 사법연감”에 의하면, 연간 1,80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불복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도 국민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쥐 잡으려다 독을 갇다’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개혁도 좋고, 사법부에 문제가 있어 이를 청산하겠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대 권력을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도끼로 벼룩 잡는’ 식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 정권에 의하여 또 다른 책으로 물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칫,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절대 권력에 의한, 절대 권력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덧씌워진다면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동 정

한정중, 안양대 매각음모 중단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대섭 목사)는 지난 2월 8일, 안양대학교 터종교 매각 시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정중은 “기독교 간학 이념을 바탕으로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계열의 재단에 매각되는 것은 건학이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심은희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가 교육부로 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아울러 심은희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ACTS 새총장에 정흥호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정흥호 교수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회는 지난 1월 11일(금) 선교문화복지학과 정흥호 교수를 제10대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오는 3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4년이다.

배우 한혜진, 난방비 후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배우 한혜진 홍보대사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겨울철 온전한 난방을 하기 어려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한혜진은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법원 판결이 사법농단 대상이 되는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법부 역사 71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하여도 죄가 있으면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사법부 최고의 수장(首長)을 구속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점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한 것들에 대한 부정(否定)이 기해져 그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지난 해 6월부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직권남용관리행사병해 및 공무원 비밀누설 등’의 혐의이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이

유는 대략 세 가지이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된 것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7개월 이상 조사한 것이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이유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를 단순한 사법적 문제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러한 결과와 나오기 전까지 이미 정치권과 사법 권력과 언론에서는 ‘사법 농단’ ‘재판 거래’ 등 정치적 용어가 생산되어 급격히 유포되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시민/노동 단체들은 ‘사법부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는 구호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적폐청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발단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하여 지난 해 5월 ‘사실무근’을 표명했고, 지난 해 7월에는 ‘재판 거래’라는 것도 ‘자료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 대법관들도 ‘재판 거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계속 보였고, 이에 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현 정권과 현 사법기관의 활력 공조에 의한 결과물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사태는 스모킹 건(smoking gun-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단서)이 충족되었느냐는 논란도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재판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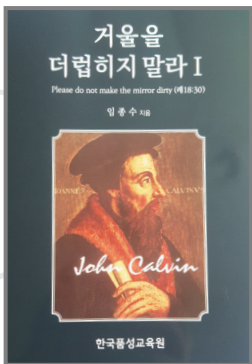
서 치열하게 전개되며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하여 구속까지 하는 것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칼날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막대한 손해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현 사법 권력의 책임도 무한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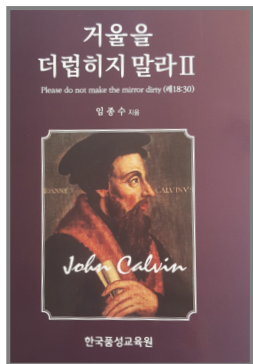
또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 행위와 행정권을 오·남용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손실이 예견된다.

우리 헌법에 보면,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권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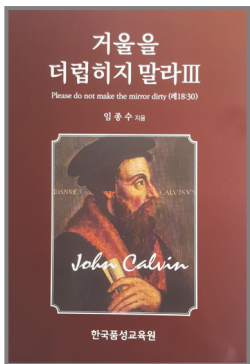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설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의 주요 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와 송실대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고, 주요 교단이 참여하는 대제기구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의 한국의 주요 기독교 연합기관은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집회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한동대학교와 송실대학교가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사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019년 1월 28일 발표하였다.

규탄 성명서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기독교교와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을 결코 간파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이하 총연합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 섰던 한국기독교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의 주요 기독교 연합기관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명서]

가장 인권을 초헌법적 원인으로
종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다자성에(산교, 폴리아모리)와 동성에 등의 성적지향 및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인권이라 옹호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종립대학에서 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에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건학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교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송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제하려는 월권이며 신성한 종립학교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행위로서 특정종교를 탄압하려는 악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권사회를 추구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수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잘못된 인권 행정을 집행해선 안 된다. 헌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동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에가 아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인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의 문제인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대학을 지원하면서 종립대학의 종교적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들이 입학 후 이를 파기하는 것조차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는 하연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는 없지만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란 예배와 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대학 설립을 허락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대와 송실대에 가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파괴하려는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 중에도 기독교는 일제에 맞서 일사각오와 순교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다. 당시 일제는 인제교육에 앞장 선 기독교와 기독교사학들을 탄압하였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강제하였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편향된 초헌법적 인권 해석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를 특정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보며, 직급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행하는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헌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동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에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에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

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선택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서약을 파기하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한동대학교와 송실대학교에 사정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면 한국기독교 1천만 성도들과 전국 교회는 헌법적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종교 탄압에 강력 대처할 것이다.

넷째, 특정종교 종립학교를 표적으로 편향된 인권의 잣대로 탄압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은 도를 넘고 있다. 과연 그 배후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끝까지 밝혀 음본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다섯째,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 탄압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28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및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비른성문화틀위한국민연합, 한국기독교보전협회, 국민기반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법학회, KHTV,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학교를품은교회모임

한동대와 송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비판 학술포럼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에(산교, 폴리아모리) 주장, 동성에 옹호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학교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2018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 받은 학생들의 진정을 받아들이 한동대학교는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하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는 송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2019년 1월 4일에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학술포럼을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성일종 의원실(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실(민주평화당) 등과 아래와 같이 공동 주최하였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 황준성 송실대 총장,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2019. 1. 24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참여)

성명서

근래 한동대학교는 동성에 세미나를 개최한 재학생들에 대해 학칙위반으로 징계조치를 하였고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한동대가 부모덕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한 것인데 국가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 버젓이 동성에, 다자성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세미나가 무단으로 열려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신성한 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패륜적 행위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두둔하자는 것인가?

종교를 떠나서 인건비, 가정파괴의 결과를 초래하는 변태성행위를 국가가 권장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 자유가 부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 사례를 소신에 따라 기독교대학을 선택하여 서약을 하고 입학한 한동대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논리라 할 수 있다

헌행 헌법과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를 애매한 문구로 차별조항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시도를 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 예방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으로 규제하려는 국가인권위의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기독교유권자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청명하는 바이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

둘째, 부모덕하고 폐해가 극심한 동성애와 다자성에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하여 확산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동성애와 다자성에, 성매매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국가인권위는 즉각 중단하라.

2019. 1. 25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안양대 비대위, 국회 앞 집회...탄원서 전달

‘교육부 조사, 이사 등재 취소, 사학법 개정’ 촉구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목사)가 지난 1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안양대학교 대순진리회 매각 의혹과 관련한 국회 방문 집회'를 갖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안양대학교 동문들과 학생들, 대신교단 관계자 등 안양대학교를 수호하고자 모인 이들은 '사법당국은 뒷돈 거래 의혹을 조사해 처벌하라', '교육부는 건학이념 벗어난 다 종교 관계자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안양대학교의 불법매각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8인의 이사 중 4인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 관계자들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관계자들로 교체하였으며 이사장 본인과 사문인 이사 1인까지 교체되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모두 넘겨주게 되는 전향적인 사립학교 경영권 매매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약 880억 원의 양도계약이 이뤄졌고, 70여 원의 계약금과 액수를 알 수 없는 중도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토로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열방을 깨우는 혈몬산 기도의 집 (역대하 7:14)

금요 철야기도 안내

1.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3. 자녀들(영적문제) 가정문제

강사 : 임마누엘교회 신석범 목사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시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담 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연합회장

손혁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후원계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윤희 목사(충남도대표)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회원 아산시 35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이의중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805937-04-00718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	---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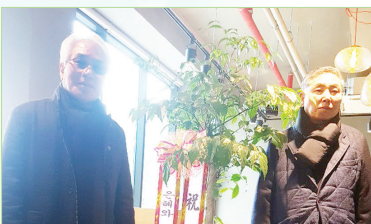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한명집 목사와 고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례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임종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중앙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성용 목사 (경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순복음중앙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화교회)	김양민 목사 (복음제일교회)	임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성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중앙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전안서부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화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경강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순복음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조선훈 목사 (대림중앙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북한교회)	박종렬 목사 (은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환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진리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한명경 목사 (은혜와평화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희숙 목사 (연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왕기교회)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회원	회원																
배용환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옥보애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김원태 혜화경찰서장 한교연 내방

공공의 질서와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할 터

김원태 혜화경찰서장이 신임 인사차 지난 1월 22 일(화) 오후 (사)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하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얼마 전 벌어진 신천지 신도들의 기독교연합회관 앞 집단 시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있으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떠나갈 듯 합성을 지르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구호를 외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원태 서장은 “최근 어떤 시위든 간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사회법에 저촉되어야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할 수 있는데 이단 시위자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실정법을 어길 경우 엄격하게 법적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만약 군이 약화될 경우 그 모든 것이 경찰에게 떠넘겨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는 마음”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치안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서장은 독실한 신앙인이니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지역의 치안이 잘 유지되고 교회와 경찰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서장은 “혜화서가 관할하는 종로5가 지역은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그동안 어떤 불상사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일선 경찰치안

업무에도 늘 협력을 아끼지 않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태 서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서경대 행정학과를 나와 한체대 사회체육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경기북부청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장을 거쳐 지난 1월 14일 서울혜화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월드비전, 화상 환아 위한 모금캠페인

성훈이(가명), 화상 사고로 9년 동안 20회 이상 수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국내 화상 환아 아동 및 국내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방송·디지털 모금캠페인을 지난 1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9년 전 화재 사고로 전신의 50% 이상 3도 화상을 입은 14살 성훈이(가명)의 사례를 조명해 국내 화상 환아 및 위기가정 후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훈이는 다섯 살에 화재 사고로 전신 5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지난 9년간 스무 차례가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앞으로도 키가 자랄 때마다 화상으로 굳어버린 피부를 절개해야 하는데, 이제 한창 성장기 시작되는 14살이 되어 앞으로 도 최소 스무 번 이상의 수술을 더 진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상의 급성기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급성기 이후 통증과 흉터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으로 1회 평균 수술비가 약 500만 원에 육박한다. 성훈이가 가족은 매년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월드비전은 성훈이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성훈이의 뜨거운 성장동’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비전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02-2078-7000), 또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은 총 3,400만 원으로, 성훈이의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에 쓰인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를 맞은 화상 환아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데 반해 화상 환부가 굳어버려 키가 자랄 때마다 절개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며, “치료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훈이와 같은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위기 가정을 위한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성, 제30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

목회자들에게 영적재충전 부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제30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이 지난 1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충남 덕산 리스스파캐슬에서 개최됐다.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20)는 주제로 2박 3일간 열린 금년 교육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에게 최상의 프로그램과 편의를 제공하여 목회자들이 편안한 교육환경 속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벽강좌, 주일강의, 세미나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성결교회 본연의 복음을 선포하여 목회

정체성을 세우도록 했으며, 한국교회 선교환경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과 전도방법 등을 통해 미래교회에 대한 부흥 방안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함께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오회동 원로목사(성광교회), 나세웅 목사(산림중앙교회)가 새벽강좌를, 최종인 목사(The Community-Centered Church), 박기영 목사, 이정훈 교수, 성기호 목사가 주일강의를, 권형재 교수, 김기남 교수가 세미나를 인도했다.



해돋는마을 어르신교실 제8회 수료식

매주 각 분야 전문가 초청해 강의

서울역 노숙자 및 쪽방촌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과 서울역신성교회(담임 김원일 목사)는 지난 1월 24일 신성교회에서 2018년 해돋는마을 어르신교

실 제8회 수료식과 2019년 9회 입학식을 가졌다. 수료식과 입학식 후 기관대표로 섬기는 김원일 목사 장현일 목사와 장분수 대외협력위원장 실로암선교회 김경자 목사는 섬김으로 나눔사역을 실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김원일 목사는 시 119:105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며 빛”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르신의 인생을 하늘에 소망 두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수료식에서 장현일 목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8년간의 어르신교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의 진정한 희망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며 “갑갑과 같이 말씀의 지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장 이사장과 김원일 목사는 지난 1년간 성실하게 해돋는마을 어르신교실 과정을 수료한 150명 대표로 이상진 어르신에게 수료증 전달과 함께 어르신교실 운영에 관한 자발적인 도우미 어르신 4분에게 어르신 봉사장을 드리며 격려 했다.

또한 어르신 대표는 그동안 어르신을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해온 김원일 목사와 이사장 장현일 목사, 이미영 원장에게 사랑과 존경이 담긴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담사를 전한 학생대표는 눈시울 가득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 큰 감동과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해돋는마을 어르신교실은 매주 4회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쇠고개로 219(어현동 470-16)

●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 택배판매 가능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성매매 합법화, 동성애옹호 징계 잘못?

한동대 학부모회-국가위 징계 철회 요구 및 재발방지책 요구



한동대학교 학부모기도회대표 황인하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신양의 자유에 따라 부당한 간섭 없이 자녀들의 바른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다자성에(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허락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대학교가 징계한 사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에 이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한동대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은 “기독교적 교육 이념 때문에 자녀들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교육과 훈육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과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이자 헌법적인 대학의 자율

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행법률상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는 주장에 학교에게 침묵하라고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다자성에, 난교 등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그 경향담이 학술대회가 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인권과 연관하며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곡된 인권개념을 실제 위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분열을 조장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고사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결정을 규탄”했다.

1만 5000여 명의 한동대 학부모들은 국내외의 학부모기도회 모임의 모든 역할을 동원하고, 교회 및 바른교육의 실현을 원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나사렛대 청년창업 활성화 앞장

NHN고도와 MOU체결, 온라인쇼핑몰 창업 교육 진행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창업교육센터와 온라인쇼핑몰솔루션 기업인 NHN고도(대표 이윤식)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온라인쇼핑몰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2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쇼핑몰창업절차’, ‘쇼핑몰구축’, ‘쇼핑몰마케팅’ 등 온라인쇼핑몰 창업 전반에 걸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NHN고도는 온라인쇼핑몰 창업자

에게 무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솔루션을 지원했다.

창업교육센터 박미옥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창업에 뜻을 둔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전할 수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교육센터는 창업동아리 운영을 비롯해 창업특강, 사회적 기업 청년활동가사업 지원 등 재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가족세트전도는 3무 전도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부흥과 전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교회성장 세미나와 전도세미나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열매 맺는 일이 별로 없고 힘들어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원수 장교가 운영하는 한국도농선교회를 알게 되어 회원기금을 하고 서울 강북지역 팀전도에 합류 하여 5년 정도 전도를 계속하는 중에 2018년 5월, 원주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를 듣고 전도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12주과정 세미나와 현장전도를 하면서 다시금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현장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등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지난 해 6개월 동안 약 60명의 영혼을 살리고, 올해 1월에만 벌써 3명이 교회에 세신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저의 올해 전도목표는 200명입니다.

가족세트 전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3무’ 전도입니다. 1.무시로 2.무지역 3.무차별 전도입니다. 새벽전도, 오

전전도, 오류전도, 야간전도는 물론이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전도가 잘됩니다.

노방전도, 상가전도, 축조전도, 병원전도, 시장전도, 식당전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요즘은 새벽 2시, 3시에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42년간 가족세트 전도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였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와 현장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박영수 목사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가족세트전도 서울 강북 지부장 한택수 목사 드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기아대책-삼양 ‘에코 프렌들리’ 과학캠프 개최

초등생 100명 참여, 과학자 꿈 키워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삼양사, 삼양패키징과 함께 ‘에코 프렌들리’를 주제로 한 삼양과학캠프를 1월 18~19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삼양중앙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대전 지역 아동 100명이 참가해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됐으며, 올해는 ‘환경보전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을 주제로 열렸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과학에 대해 배우고, 1박 2일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을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재활용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환경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밖에 △미래 자동차 만들기 △가상현실(VR) 체험 △재활용품을 활용한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분리수거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모든 순서에는 삼양연구원과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활동을 도왔다.



캠프에 참가한 이상우(11세, 대전수정초)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현될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아본 시간이 가장 흥미로웠다”며 “평소 알지 못했던 과학 지식도 쌓고 처음 보는 친구들과 협동해서 활동하며 진해될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다년간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삼양의 기업

전문성을 살려, 지역 아동들이 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과학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과 과학에 대해 친근하게 느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교육부가 인증한 교육기부인증기관으로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기관, 기업 등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션협 제133차 월례회 연합교회에서 개최

동남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다뤘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션협) 제133차 월례회가 지난 1월 31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3-8번지에 위치한 연합교회(담임 전순임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1부 예배는 전종호 전도사(연합교회)의 인도로 부회장 권은숙 목사(행복한교회)의 대표기도, 조희영 목사(풍성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성령으로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계 송민자 목사(참사랑교회)가 헌금기도하고, 김용현 목사(하나교회)의 인도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세션협 부흥과 동남학원 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션협 회원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 후 회장 한규섭 목사(남동제일교회)의 축도로 제1부 예배

를 마쳤다.

제2부 세션협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인도로 회장의 개회선언, 황정희 목사(풍성한교회)의 전 회의록 낭독 후 회계 송민자 목사(참사랑교회), 임양팀 회계 전종호 전도사의 보고를 받고,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필리핀 선교 중) 보고는 차기 월례회에서 받기로 하고, 총무 전순임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20일(수)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응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서천군
SEOCHONCOUNTY
문화관광사업

- 서천군청 (문화관광 > 문화탐방)
- www.bible1816.modoo.at
- 1816bible@daum.net

한국
최초

성경전래기념관

Korea's First Encounter with the Bible: The Seochon Bible

성경전래!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

한국최초 성경전래의 영향



1816년 9월 5일 2척의 영국함대가 서해안 일대의 해도 작성을 하던중 '진에 정박한다. 알세스트호의 함장 맥스웰을 통하여 천사 조대복에게 한국최초로 성경이 전달된다.

그 당시의 일들이 책으로 엮어져 서구사회에 조선이 소개되는 접촉점이 되었다.

- 그 당시 받은 성경은 1611년(초판) 킹제임스 성경임.
- 최초의 성경전래가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됨
-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잖은 원동력이 되었다.

1F
전시관

- ① 항해의 재비 서해안 항해의 목적과 함선 그리고 서천 마량진
- ② 바이블로드의 서막 성경 전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극화한 애니메이션 상영
- ③ '이방인과 알 수 없는 언문' 머리 맥스웰 함장과 바실롤, 마량진 천사 조대복과 비인 한강 이승렬 일행과 만나다
- ④ '물집으로 이룬 소통' 함선에서의 에피소드

2F
전시관

- ⑤ 세계적 보물인 킹 제임스 바이블 진본 전시 (1611년 초판)
- ⑥ '한국성경 변천사'
- ⑦ '성경책 만들기'
- ⑧ '포토존'

3F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특산물 판매장

서천 최고의
전망과
맛있는 원두커피 등

4F
다목적강당

예배실·세미나·레크리에이션 등
심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또다른 세상

바다위에 십자가!!!
카메라에
담아 보세요.^^

함께 보아야 할
기독교 유적지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한국최초 성경전래 기념공원



한국최초 성경전래 기념공원 마량진 한국최초 성경전래 고종박화

관람시간

하절기 : 3월~10월 (10:00~18:00)
동절기 : 11월~2월 (10:00~17:00) 폐장 30분전 입장마감

휴관안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수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문의

(041)951-1816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89-16 (서면 마량리 137번지)

관람료

성인 2,000 / 청소년·군인 1,000 / 어린이 600
성인 1,500 / 청소년·군인 600 / 어린이 400 (단체 20인 이상)

후원안내

농협 351-0968-7961-13
(한국최초성경전래기념관)



(사)한국최초성경전래 사업회



화제의 신간 / 영적회복을 위한 비밀 열쇠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돌아봄의 시간

〈하나님의 미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좌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언가 바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항상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끼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도 강조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찬양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서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구입문의 (063)625-069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를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초대서

이제인 창로 // 은혜와진리교회

내 삶의 향기가 되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반은 삼키고
울고 싶은 날이 있거든 웃음에 던지고
참지 못할 분노가 차면 하늘을 향하렴.
그리고 너무 많이 선행되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할 말 참으시고, 들었던 때도 내려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애타는 간절함, 이를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저희를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네 들리는 귀는 손바닥으로 막지 말거라.
네 보이는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타오르는 입술은 찬양으로 녹이고,
가다듬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거라.”

예, 하나님, 난 참으로 행복합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샘이 솟아 오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꽃 한송이 고이 바쳐 들고서 주님을 뵈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향기가 되옵소서

“한국교회가 뿌린 ‘사랑’의 씨앗, ‘생명’의 열매 맺길”

1월 마지막 주일, 전국 5개 교회서 생명나눔 물결 이어져

1월의 마지막 주일, 전국 5개 교회가 생명나눔의 섬김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실천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광명교회(담임 정태민 목사)는 27일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를 초청,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이날 1, 2부 예배에서 설교한 박진탁 목사는 ‘참 이웃’(눅 10:30~37)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속성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나뉘야 할 사랑이 가득 차있다”며 “과거 한국교회가 한철에 앞장서 사회운동이 된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운동도 우리로부터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앞서 영상을 통해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뇌사 장기기증인 및 신장기증인들의 사연과 이식 후 새 삶을 살고 있는 이식인들의 모습을 접한 성도들은 생명나눔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75

명의 성도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 위치한 맑은샘교회(담임 홍형주 목사)와 부산참빛교회(담임 김성민 목사) 역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각각 36명과 31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했고, 이 밖에도 경기 고양 지영교회(담임 조대현 목사)와 제주 한포교회(담임 송기오 목사) 등 전국 각지에서 생명나눔의 물결이 이어져 모두 167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에 뜻을 모았다.

박진탁 이사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합계온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부전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견인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향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향리향오일, 원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화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위더,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어버터, 마카데미아씨트오일등

⑨ 젤뮈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음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문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위더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위더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위더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긋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사설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까지 삭제함으로써 한·미·일 대(對) 북·중·러시아의 동북아 안보 균형이 근본적으로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역대 정부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예비역 장성들이 1월 28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창립총회에 이어 1월 30일 출범식을 가졌다. 발세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천용택·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국방 책임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와 다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절박성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21일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합의 등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진실한 변화가 없음에도 우리의 안보 장치들이 서둘러 해제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기에 부득이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담금협상의 이전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한·미 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며, ‘방위비 모금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이 ‘국가 존망’을 걱정할 정도’라는 게 이들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정부는 군 원로들의 이러한 충정을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폐기와 동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확고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더욱 중요할 때다.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에 집중하며 핵 동결 선에서 협상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또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고 ICBM 폐기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응할 경우 핵 폐기는 요원해지고 핵우산 및 동맹 훼손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위기 탈출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패낸 취임 2주년 자료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핵심 치적으로 꼽았다. 정부가 이번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대변인 담화에서 북핵 묵인 우려 속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천 이백만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나?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소위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90여 건의 판결 결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30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선대유 판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또 다른 오 모 씨 등 5명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법원에서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찌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가? 법원은 이를 양심적 발로로 해석한 것인데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다. 이를 합당한 판결이라고 인정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주장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겠으나 여호와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놀랄만한 것도 아니다. 여호와증인들은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사단의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전혀 몰출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네, 정상적인 국민들의 의무를 어리게 보며 국가권력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원의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증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는 여호와증인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다면 여호와증인만이 인정받을 만한 양심을 가진 것인가? 거기에도 국가의 존립을 반대하여 혼란을 주는 것도 양심이란 말인가?

적어도 온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고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를 거부하고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양심을 말한다면, 어떤 상황도 감수하고 확고한 신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는 데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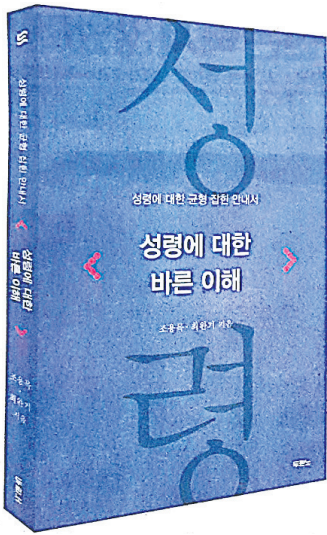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자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입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 **조종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학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50,000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전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입학원서 추천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건강진단서(HIV포함)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원서교부: 수시 교부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30,000원(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